

후쿠에지마 섬: 돌 문화

모르타르 등의 접착제를 쓰지 않고 쌓아 올린 돌벽을 ‘이시가키(돌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뚝 솟은 성벽이나 토대를 가리키는 데 쓰이는데, 실제로 후쿠에에서 가장 뛰어난 예로서는 후쿠에성의 성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돌담은 섬의 거의 전역에서 볼 수 있으며, 매끈하게 자른 석재로 만든 벽부터 거친 돌을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것까지 다양합니다. 후쿠에에는 화산석이 풍부하기 때문에 번주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주민에게 중요한 건축 자재였으며, 화산석 이용은 이 섬의 환경에서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후쿠에성과 도미에 이시구라

현존하는 19 세기의 후쿠에성 성벽과 18 세기의 도미에 이시구라는 아마도 후쿠에에서 가장 훌륭한 돌담의 예일 것입니다. 단단한 현무암을 정성껏 잘라내고 돌과 돌이 고르게 맞물리게 해 매끄러운 외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 다 당시 영주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서 영주는 전문 석공을 고용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몇 세기에 걸쳐 목조 지붕, 문, 마루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비바람과 무성한 덩굴 때문에 서서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담은 지금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무가 저택 거리

후쿠에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17 세기의 성하 마을인 후쿠에의 모습을 지금도 전해주는 중급 무가 저택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약 400m 에 걸쳐 이어지며, 각 저택을 둘러싸듯이 이시가키(돌담)가 늘어서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후세에 재건되거나 개축되었지만, 돌담은 당시의 것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고보레이시’라고 하는 둥근 돌을 쌓아 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균형이 잘 잡히지 않은 채 쌓아 올려진 돌은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적이 야간에 성벽을 넘어 숨어들려고 했을 때, 돌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주민들을 깨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 양 옆으로는 후쿠에 이시가키의 또 하나의 특징인, 반원형으로 쌓아 올려진 작은 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따뜻한 메밀국수나 우동 위에 올리는 가마보코(반원형으로 만든 어묵)와 닮았다고 해서 친근함을 담아 가마보코이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루하타

후쿠에시 교외로 나가면, 현무암을 잘게 자른 돌담의 형태에서 다공질 용암을 거칠게 쌓아 올린 돌담의 형태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재가 달라지면서 장인이 의뢰를

밭아 지은 축조물과 농가에서 자신들이 직접 근처 땅에서 돌을 가져와 쌓은 거친 돌담이 시각적으로 구별됩니다. 오래된 농가의 담, 방풍림, 함석 지붕 오두막, 농산물을 말리기 위한 오두막에 이르기까지 이 구멍이 난 검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미이라쿠 반도에서는 마루하타라고 하는 특징적인 원형 밭 주위에 담을 쌓을 때도 용암석이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밭은 쉽게 경작할 수 있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일반적이지만, 미이라쿠의 농가에서는 용암대지의 완만하고 둥그스름한 지형에 따른 다랑논과 그 다랑논이 만드는 자연적인 물굽이에 따라 밭을 만들었습니다. 용암 벽이 마루하타를 둘러싸서 토양의 침식을 막는 동시에 여분의 물을 흘려보냅니다. 벼 재배에는 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밭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고구마, 보리, 대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간지가성

도미에 반도의 남해안에 ‘간지가성’ 또는 ‘야마자키의 석루’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돌담이 있습니다. 미로 같은 해변의 요새 터가 녹지대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거칠게 형성된 현무암 성벽이 약 180m에 걸쳐 이어져 있습니다. 요새의 정확한 기원은 수수께끼에 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해적의 은신처였음을 보여주는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암초에 의해 지켜지는 외딴 장소에 있으면서 먼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새 입구는 하나밖에 없으며 벽에는 밖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이 곳곳에 있습니다. 유적에서 출토된 명나라 화폐, 도기 파편, 인골 등이 이 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설은 지역의 민화에서 유래하는데, 갯파(물속에 산다는 어린아이를 닮은 상상의 동물)의 도움을 받아 간지라는 이름의 목수가 지었다고 합니다.